

광주 고교 '시험문제 유출' ... "학교 차원 조직적 개입"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갖가지 편법 동원"

해당 고교 중점 관리 학교로 지정 등 지도·감독 강화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의 한 고등학교가 명문대 진학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특정 학생들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광주시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된 광주의 A고교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한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A고교가 명문대 진학 실적을 높이고자 대학입시 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도 갖가지 편법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을 특별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와 평가관리 부적절,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 4가지 위반사

항을 확인했다.

일부 시험문제가 유인물이나 특정 문제집 나오는 등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과후학교 '수학 최고급반'에서 교재로 사용된 의혹이 불거진 만큼 시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문제들이 특정 학생에게 사전에 제공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술형 평가의 경우 채점기준표를 문항 출제와 함께 사전 결재해야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채점기준표를 채점 이후 결재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사가 채점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채점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동일 답에 다른 점수를 부여하거나 근거 없는 부분 점수를 주기도 했다.

특히 정답을 오답 처리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채점 오류가 다수 발견돼 감사 기간 중 해당학교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최상위권 학생들을 특별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1·2·3학년 모두 성적순으로 우열만을 편성해 운영했고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도 사회적 통합 대상자와 원거리 통합 대상자에 대한 고려 없이 성적우수 학생을 기숙사생으로 선별했다.

성적우수자들로 구성된 기숙사 학생들에게는 일반 학생들은 선택권이 없는 과목별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토요논술교실까지 연계해 심화된 교육활동을 통해 제공했다.

대학입시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하기도 했고, '논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13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양정기 교육국장과 김용철 감사관이 A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관련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진로활동)'을 영어와 수학으로 수업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A고교 자체 규

정에 따르면 교과 내신과 비교과 점수를 반영해 선정도록에 있지만 비교과 영역 점수는 무시한 채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모든 대학에 성적 우수학생

을 단수 추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관리자 등을 중징계(교장 파면·교감 해임) 요구했다. 또 관련 교사 48명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를 감안해 징계 및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외로 A고교를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선택과목 강제 수강 및 우열만 편성을 금지하고,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점검하고, 학교당 연 4회의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특정 학생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학교가 입시 학원화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를 중점 관리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인호 기자



한반도사랑 퍼포먼스

12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직원, 어린이들이 한반도 모양의 화단에 바람개비 태극기를 꽂고 나라사랑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농어촌용수 국가가 책임져야"

'가뭄피해 우려 지역 지원의무 규정' 개정안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서 의원이 공개한 2016년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가용용수량은 예상 수요량보다 13억㎡ 많은 260억㎡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뭄의 강도에 따른 농업용수는 연간 1억7500~3억8600㎡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2000년 이후 농업가뭄의 빈도는 지속적인 증

가 추세로 2010년 이후에는 매우 심함'으로 구분된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뭄 발생일 수는 2015년 연간 184일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도서 지역은 좁은 유역면적과 염지하수 등으로 인해 원활한 상수원 취수 및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가뭄으로 인해 안정적인 지하수와 저수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 등에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광복절 휴무로 다음 호 16일자 발행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늬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